

정시팻 관련 문의가 많아서 정시팻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문학 방법론 PDF 맨 아래에 함께 첨부했어요! 혹시나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및 입니다 :)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럽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지금 하고 있는 공부에 집중하셔야 해요! 냉철하게 방법론을 정리하고 행동영역과 전략을 더더 치밀하게 세워주세요 9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 수능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도 늦지 않으니, 우선 지금은 본연의 독해력을 기르는 데에 집중해주세요! 화이팅!

**지금부터는 문학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은 칼럼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

---

## 1. 문학 방법론 칼럼에 관하여

### **[문학 방법론 칼럼 목차]**

문학 방법론 [1]: 문학의 전체적인 메커니즘 설명

문학 방법론 [2]: 현대시 체화

문학 방법론 [3]: 고전시가 체화

문학 방법론 [4]: 현대소설 체화

문학 방법론 [5] 고전소설 체화

보신 것처럼 문학 방법론 칼럼은 총 5개의 이야기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문학 방법론의 메커니즘**을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칼럼부터는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까지 각각의 갈래에 대해 더 자세한 행동 영역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감이 오시죠?!

이번 칼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글을 써볼게요!

문학 방법론은 독서 방법론과 달리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상하는 체화 기간은 1개월입니다!**

다만, 문학의 메커니즘 자체가 정말 복잡해서.. 글로 설명하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더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아참, 메가스터디 최인호t 문학의 정석 강의와 함께 칼럼을 보시면 더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도.. 칼럼만 읽어도 상관 없도록 한 번 써볼게요..!

---

## 2. 문학에서 바꾸어야 할 단 한 가지

여러분은 문학을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저는 예전에 문학 영역에서만 25분 이상을 썼었어요.. 독해 속도도 느렸지만 문제 선지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현대시 문제를 푸는 상황으로 가정해볼게요!)

“저는 그동안 문학 인강을 몇 개 들어보았기 때문에 <보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보기>를 먼저 읽고 시를 읽었어요! 하지만 <보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를 읽을 때 보면 <보기>의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읽었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시를 읽어가면서는 화자의 심리, 시공간 등등을 체크하긴 했는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긴가민가한 상태로 문제를 풀러 가면, 몇 개 선지는 감으로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자꾸만 두 개 선지가 헛갈렸어요,, 그래서 그 두 선지만 시에서 다시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답은 나오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반신반의의 상태로 선지를 찍고 25분 이상 시간을 쓰고 문학 영역을 끝냈습니다.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채점해보면 문학 몇 개 틀려 있고,, 분명 문학 공부를 매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고.. 대체 왜 이럴까요?!”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식으로 풀고 있진 않나요?!

조금 과장을 섞어서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문학 풀이 과정에 공감을 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 주셔야 해요!

이때부터 저는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 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 1.<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른다.
2.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른다.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순서**예요!

네..? 이 순서만 바꾸면 된다구요..? 그럴리가,,

ㅎㅎㅎ 정말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지문을 읽고 문제로 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는 방식으로 가야 해요!**

이렇게만 한다면, 시간과 정답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론을 통해 문학 25분에서 문학 18분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단축했고 정답률 또한 정말 수직 상승시켰습니다..! 잘 따라와주세요!

선생님!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읽고 지문으로 가야 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늘 이 문학 방법론 칼럼에서 이러한 방식을 체계화해서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문학 방법론에서 단 한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바로, **문제를 먼저 읽고 -> 지문을 읽는 방식**이에요!

그럼 더 자세하게 들어가볼까요?

### 3. 문학 방법론의 메커니즘

**문제를 먼저 읽고 -> 지문을 읽는 방식.**

**우리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먼저 읽고 ->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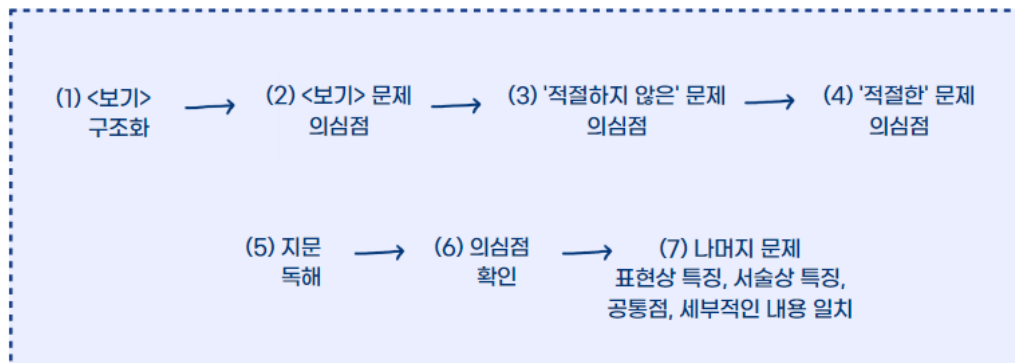
이 방법론이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문학 방법론이에요

문학은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운문 문학은 현대시, 고전시가와 같은 시 갈래이고, 산문 문학은 현대소설, 고전소설과 같은 소설 갈래입니다.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 간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갈래별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칼럼들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문학 방법론의 기본적 메커니즘을 같이 확인해봅시다!

메커니즘의 순서에 따라 문학 한 세트를 풀면 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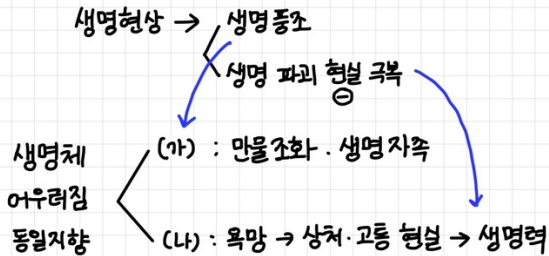
잘 보셨나요? 1번부터 7번까지 해당하는 메커니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젠 문학 전문가가 될 거예요! 하나 하나 살펴볼까요?

## (1) <보기> 구조화

시나 소설 한 세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구조화하는 작업이  
 예요 <보기>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비문학처럼 읽고 반드시 옆에 구조를 살려 적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읽는다면 머릿속에서 날아가버릴 거예요 어떻게 적어야 할 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보 기>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가)는 만물의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저촉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두 양상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생명의 모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지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보기>를 비문학처럼 구조화해주시면 됩니다! 논리 전개가 이어진다면 화살표로 따라가고, 비교 구조가 보인다면 과감하게 꺾어주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면서 적기! 이거 독서 방법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문학에서 나오는 <보기>의 대부분은 독서 영역의 비교 구조로 나와요! 비교 구조 이젠 잘 아시죠? 이렇게 모든 <보기>를 구조화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 (2) <보기>문제 의심점

<보기> 구조화가 끝났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보기>문제의 선지를 읽어가는 거예요!

네..? 선지 먼저 읽는다고요..? 생소하시죠..?!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시고 체화하신다면 제가 지금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보기> 문제의 선지 5개를 읽어가면서 **의심점**을 찾아야 해요!

의심점이란, 답이 될 것 같은 선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답일 것 같은 선지를 골라주세요!

네...? 찍어보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몇 가지 규칙에 의거해서 의심점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1. 선지에서 <보기>와 다른 말을 하는 경우 -> 의심점!
2. 선지에서 <보기>에 없는 말이 나온 경우 -> 의심점!
3. 선지에서 <보기>와 추상적으로 다른 말 -> 의심점!

- 4. <보기>에는 있지만 선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말 -> 의심점!
- 5. 다른 선지와 충돌을 일으키는 선지 -> 의심점!
- 6. 한 선지 내에서 앞 뒤 연결이 되지 않는 선지 -> 의심점!

자, 제가 10개년의 문학 문제를 여러 번 풀면서 찾은 의심점의 유형들은 방금 말씀드린 6가지 유형이 전부였습니다!

예시를 한 번 살펴볼까요?

27.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조, 가사,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 (가)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 (나)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

①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라면,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

② (가)의 '저 늙은이'가 작가가 아니라면, <제4수>는 '남대'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보기>에선 분명 (가)의 작가는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고 했죠?! 그리고 1번 선지를 보면,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 생활의 흥취를 드러냈다고 했어요! 하지만, 2번 선지를 보면 '나'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을 보면서 거리감을 느낀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1번 <보기>와 다른 말을 한 경우, 그리고 5번 다른 선지와 충돌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심점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의심점 고르기 참 쉽죠..?

자, 이렇게 <보기> 문제의 선지를 읽으면서 의심점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때, 신경 쓸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1) 반드시 5개의 선지를 모두 붙여 읽는다.**

선지의 충돌을 통해 의심점을 찾기 위해서, 5개의 선지를 붙여서 읽어 주셔야 해요! 1번 선지 읽고, 2번 선지 읽을 때 1번 선지 연결해주고, 3번 선지 읽을 때 1,2번 선지 연결해보고,, 이걸 정말 많이 연습하셔야 해요! <보기> 문제 말고도 다른 문학 문제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2) 선지의 앞부분이 아닌, 뒷부분에 신경 써야 하며, 선지에서 핵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의 앞부분은 대개 지문에서 그대로 발췌해온 내용이 담기고, 뒷부분에 출제자의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 뒷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의심점을 파악해주세요! 또한, 다른 문제를 풀

기 위해서 혹은 의심점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을 위해서 반드시 5개 선지의 핵심들을 기억, 연결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선지마다의 핵심에 동그라미를 치고 기억하며 넘어가주세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 우리 <보기>를 구조화했고 <보기>문제의 선지를 읽으며 내용도 얼추 파악하고 의심점도 체크했을 거예요! 이제 바로 지문으로 갈까요..? 아니죠! 다른 문제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의심점 파악을 해줄 거예요!

### (3) '적절하지 않은' 문제 의심점

<보기> 문제 다음으로 의심점을 파악해줄 문제는 바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혹은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을 묻는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는 5개 선지 중 1개가 틀렸고 나머지 4개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이 나머지 선지 4개를 통해 우리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흡수해갈 수 있어요!

<보기> 문제를 통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씩 흡수했었구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의심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 1) <보기>와 <보기> 선지의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틀린 선지 찾기
- 2) (+), (-) 논리를 통해 하나의 틀린 선지 찾기

1)의 경우 이전 <보기>문제에서 의심점을 찾던 방식과 똑같아요 2)의 경우에는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 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마'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번, 4번, 5번 선지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표면상으로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반면에, 3번 선지는 어떠신가요? 행복감..? 나머지 선지와 달리 이 선지만 + 정서를 이야기하네요..? 당연히 의심점입니다! 이제 2)에서 서술된 +/- 논리를 이해하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의심점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 <보기>에서 의심점도 찾았고,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의심점도 찾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서 의심점만 찾고 지문을 읽어봅시다!

#### (4) '적절한' 문제 의심점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에선, 대개 **지문의 전체적인 핵심**을 답으로 만들어요! 5개의 선지 중 단 한 선지만 맞는 선지인데 이상한 걸 답으로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에, 역으로 우린 이걸 이용해서 의심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기>문제, 적절하지 않은 문제를 거쳐오면서 형성된 단서들을 토대로 선지 5개를 쭉 읽어보면서 가장 핵심일 것 같은 선지를 골라주세요!

선생님...? 이거 감 아닌가요? 맞아요! 감이에요! 핵심을 골라낼 수 있는 감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걸 연습하면 금방 기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핵심적인 선지를 고르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핵심 선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보세요 분명, 한 달 후엔 보일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핵심을 찾는 감을 한 번 테스트해볼게요!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면서 자연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진혈대'와 '불정대'에서는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③ '개심대'에서는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화자가 바라본 풍경과 그에 대한 감흥이 서술되고 있다.
- ④ '화룡소'에서는 화자의 시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며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화룡소'에서 '불정대'까지의 이동 경로를 드러내지 않아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보기>문제와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얻은 단서를 말씀드려볼게요! 의심점을 골라보세요!

이 시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했다네요! 자연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면서 봉우리를 여행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선지 5개를 모두 살펴봐 주세요 의심점이 보이시나요?

맞아요! 의심점은 3번 선지입니다! 선경후정, 풍경, 감흥 등의 단어가 들어있네요! 이제 핵심 선지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제 여러분은 의심점을 찾지 못하였더라도 최소한 2개 선지 정도는 지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 (5) 지문 독해

자, 우린 이렇게 <보기> 문제, 적절하지 않은 문제, 적절한 문제의 선지를 모두 읽어보았고 의심점도 발견해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들을 통해 형성된, 지문에 대한 전체적인 감각도 가지고 있죠! 이 상태로 지문을 읽는다면, 그냥 읽는 것보다 100배는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싶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문 독해 방법은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 갈래를 다루는 다음 칼럼들에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이야

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6) 의심점 확인

지문 독해가 끝났다면, 이제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의심점으로 잡아 두었던 선지들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내가 의심했던 이 선지가 답이 맞을지! 이젠 지문을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정답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의심점이 답이 아닌 것 같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다른 선지들을 차분하게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원래 우리가 하던 방법이랑 똑같잖아요! 지문 읽고 문제 풀기! 의심점이 답이 아닐 경우엔, 다른 선지들을 보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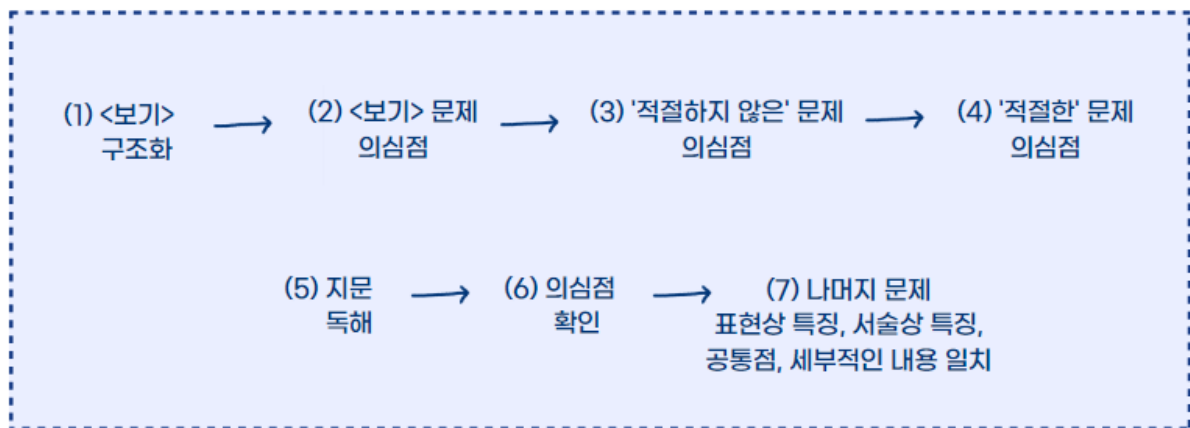
## (7) 나머지 문제 : 표현상의 특징, 서술상의 특징, 공통점, 세부적인 내용일치 등

이 문제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푸셔야 해요! 의심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 유형들이기도 하고, 다른 문제들과 지문을 통해 전체적인 감각이 형성된 다음에 풀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기도 하니까요!

평가원이 이 문제 유형들을 세트의 가장 첫 번째 문제로 두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뒷순서로 배치할 수록 이 문제 유형들의 정답률은 높아집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 유형들을 마지막에 풀 수록 유리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문학 방법론의 메커니즘이에요! 이제 각각의 갈래에 맞는 방법론과 행동영역 등은 다음 칼럼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 4. 문학 방법론의 메커니즘 총정리



문학 한 세트를 만났을 때, 지문을 바로 읽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비문학처럼 구조화하고 <보기> 문제의 선지들을 읽어가면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의심점을 발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기>와 선지들을 기억해둔 채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에서 의심점을 발견하고, 적절한 문제에서도 핵심을 찾아 의심점을 체크해둔 다음, 지문 독해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지문 독해가 끝나면 체크해 두었던 의심점들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모의고사를 풀 때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시나 소설을 읽고 난 직후에는 무슨 내용인지 감을 못 잡겠는데, 몇 문제 풀다 보면, 혹은 몇 개의 선지를 읽다 보면 점점 지문의 내용이 다가오는 경험! 점점 감이 잡혀가는 그 경험!

제가 말씀드린 이 문학 방법론은 그 경험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문제들을 통해 감을 잡고 -> 지문을 통해 확실하게 만들기!** 이게 다입니다!

오늘부터 이 순서대로, 이 메커니즘대로 푸는 연습을 진행해보세요! 천천히 문학 선지를 보는 힘부터 분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

## 5. 하고 싶은 말

사실,, 독서 지문의 경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기 때문에 방법론이 일관되게 나올 수 있지만, 문학은 지문 패턴도 <보기> 패턴도 문제 유형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방법론을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과외할 때도 1~2주에 걸쳐 설명하는 문학 방법론이기에,, 글로 쓰기에 부족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제 스스로 이 글에 만족하지 못해서 문학 방법론 칼럼을 수십번은 썼다 지웠다 반복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구체적이고 많은 내용을 담아서 문학 방법론 칼럼 시리즈를 완성해볼게요..! 그러니, 지금은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도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분명 이 방법을 통해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을 끌어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이 칼럼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세요! 다음 칼럼에서는 이제 현대시에 어떻게 이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풀 수 있는지, 행동영역은 무엇인지 등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 뵙요! 그동안 화이팅 :)

밋(mit)

연세대학교 재학중  
국어, 영어 과외 40명 이상  
온라인 수능 상담 100명 이상  
대치, 반포 국어 학원 모의고사 전담 조교  
정시팻 모집 시작!

# 국어 정시팟 모집 ✓

지금부터 수능까지 함께 달릴 정시팟을 모집합니다!!  
국어의 방법론, 행동영역, 전략, 기출 분석, EBS, 실전모의고사, 사설n제 모두 진행합니다!

모집 마감 : 2023. 07. 31 (월) (정식 모집 시작일은 7월 13일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모집 인원 : 각 정시팟 당 5명 (변동 가능)

모집 대상 : 6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3등급 이하 학생

수업 장소 : 대면 - 서울 강남역 인근 스터디 카페 (도보 5분 이내)  
비대면 - 디스코드 플랫폼

수업 일정 : 주 1회 3시간 + α (1대1 상담, 학습코칭, 전과목 커리큘럼, 질의응답)  
주 1회 수업이기에 부담 없으실 거예요!

고3, n수팟 - 8월 11일 시작 ~ 11월 13일 끝  
고1, 고2팟 - 8월 12일 시작

수업료 : 40만 원 (강의실 대여료 및 과외 교재비 무료 / 필기구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수업 신청 방법 : 네이버 쪽지 또는 이메일 [hdhd2588@naver.com](mailto:hdhd2588@naver.com)으로  
학년/이름/원하는 시간대/등급/화작or언매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루 픽하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b>고3 n수팟</b>		대면 오후 7~10시	대면 오후 7~10시		대면 오후 7~10시	대면 오후 7~10시	비대면 오후 7~10시
모집 인원		(3/5)	(2/5)		(2/5)	(4/5)	(4/5)
<b>고1 고2팟</b>						대면 오후 2~5시	대면 오후 2~5시
모집 인원						(2/5)	(2/5)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국어 정시팻 모집 ✓

## 공지 사항

### ✓ [모집 관련]

1. 정시팻은 각 일정마다 **선착순**으로 모집됩니다!
2. 일정별 모집 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 **시간을 옮겨야 하거나 폐강**될 수도 있어요!
3. 사실, 저도 매일 수업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폐강되는 요일이 발생할 거예요...!
4. 고2 학생도 고3 & n수팻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5. **최대한 빨리** 지원해주세요! 독일에서 기념품을 사가야 해서..

### ✓ [수업 관련]

1. 비대면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요일 수업**으로 신청해주세요!
2. 정시팻 수업에 참여하시는 순간부터 방향성에 맞춰서 **국어 관련 인강, 교재, 커리큘럼** 모두 제가 개개인별로 세워드릴 거예요! 8월부터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다만, 3개월 간 수능까지 정말 압축적으로 공부할 예정이니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해요.  
하지만, 기초부터 심화까지 빠짐없이 꼼꼼히 다룰테니 걱정마세요!
4. 10월 ~ 11월에는 월 1~2회 정시팻 전체가 모여, 수능 시험장처럼 **실전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에요!
5. 수업 첫 1~2주 동안은 정시팻 수업 이외에도 1대1로 **개인 상담, 학습코칭, 전과목 커리큘럼 관리** 등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6. 수업 중간 중간 점검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1대1로 보충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영어 수업** 관련 질문이 많은데, 수업 전후 시간대에 제가 따로 봐드릴게요!
8. **디스코드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지사항, 학습코칭 등이 진행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 국어 정시팻 모집 ✓

## ○ 커리큘럼

### [고3 & n수 팻]

2024수능에서 국어 1등급 맞기!

### [고1 & 고2 팻]

국어 영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요!

#### 2024 수능 고3~n수 정시팻 커리큘럼 표

8월	독서, 문학, 화작/언매 : 방법론, 행동영역, 전략, 1대 1 상담, 학습 코칭, 커리큘럼
9월	독서, 문학, 화작/언매 : 평가원 기출 7개년 풀이 및 체화
10월	독서 리트, 사설n제, EBS 풀이 및 체화 문학 교육청 기출, EBS 풀이 및 체화 다 함께 모여 사설 모의고사 실전 풀이 및 전략 수정
11월	기출, 사설 n제 병행 및 사설 모의고사 실전 풀이 행동영역, 전략 수정 및 수능을 위한 모든 것

#### 고1~고2 정시팻 커리큘럼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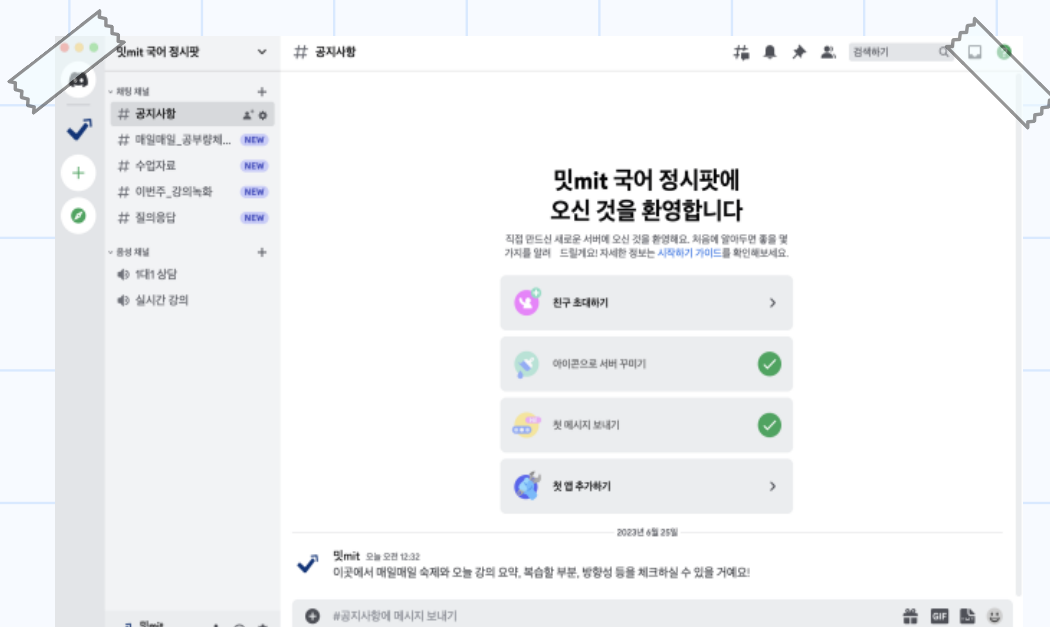
8월	독서, 문학, 화작문 : 개념, 방법론, 행동영역, 전략 고1 ~ 2 교육청 기출 7개년 풀이 및 체화
9월	고1 ~ 고2 교육청 기출 7개년 풀이 및 체화
10월	고3 교육청 기출 7개년 풀이 및 체화
11월	고3 평가원 기출 풀이 시작 2025 수능 대비 커리큘럼 전환

## ○ 디스코드 플랫폼 활용 방법

여러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스코드라는 플랫폼을 도입했어요!  
디스코드를 가입한 뒤, 제가 초대를 하고 입장을 하게 되면,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익명 사용!)

그곳에서 질의응답, 수업 자료, 1대 1 상담, 실시간 강의, 공지 사항, 오늘 수업 내용 요약 등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업을 듣고 -> 디스코드를 활용하여 오늘 강의 요약, 복습 및 숙제를 확인해주세요!



# 국어 정시팟 모집 ✓

정시팟 교재

✓ [자체 제작 교재]



✓ [EBS 문학, 독서 / 리트 언어이해 / 사설 n제]

✓ [이감 or 상상 실전 모의고사]